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1일 목요일 음 2월 20일 (12월)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4도C. 낮 최고기온은 18-19도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precipitation percentages for Jeju, Seongsan, Goseon,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Sunrise) and 달뜨기 (Moonrise) times for Jeju Island.

Table with 2 columns: 내일 (Tomorrow) and 모레 (Day after tomorrow) weather forecasts for Jeju Island.

Table with 4 columns: 미세먼지 (PM10) and 초미세먼지 (PM2.5) levels categorized as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수에즈 운하 뚫려도 '마비 후유증'

운임 상승 지연 비용 '눈덩이'

막혔던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한주 만에 뚫렸지만 여파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에즈 운하를 막아선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그린호의 좌초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부터 선박이 운하를 통과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수에즈운하관리청(CSA)은 30일 아침까지 113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나흘 안에 통행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는 동안 인근 항구, 홍해상에서 대기 중인 선박은 400척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대기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순조롭게 통과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물류 운송 차질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탈레흐 칼릴리 캄배레 국제정치학 교수는 31일 미 NBC방송에 예상



수에즈 운하를 막아선 에버그린호.

치 않은 일반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대기 선박이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많은 선박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 유럽의 항구가 혼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갠긴 뉴캐슬대 해양 운송·물류학 교수는 팬데믹 속에서도 최근 몇 달 동안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반등함에 따라 세계 운임이 크게 올랐고, 이번 지연 사태로 팬데믹 이전보다 물류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선박 운항 차질로 피해를 본 기업의 보험금 청구와 소송건 등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목요담론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요즘 여유가 있을 때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의 재방송을 시청한다. 시청을 하면서 소름이 돋는다.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로 알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더 소름이 돋는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안회습진(顔回捨塵)' 일화는 공자 일행이 진나라와 채나라 전쟁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일주일째 밥을 못 먹은 상황에 제자 자공이 어렵게 쌀을 구해왔다. 공자는 안회와 증유에게 밥을 짓도록 했는데,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천장에서 떨어진 먼지가 술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보이겠는가? 안회는 스승과 동료에게 지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깨어 있는 사람이라 안회의 행동에 대한 진실을 밝혀 '안회가 재를 주워 먹었다'의 '안회습진' 일화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지 오류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기보다 무언가를 믿고 싶어서 믿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도,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마당

'U-119 안심콜' 신청하세요



손창보 서귀포시 표선119센터

길가에 만발한 유채꽃을 보면 봄이 온 것을 느끼지만, 아직은 아침과 저녁 기온 차이에 옷차림을 가볍게 입기 조심스러워진다. 일교차가 큰 지금 시기에는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과 갑작스럽게 혈관이 수축되며 발생하는 심장질환이 증가하는 만큼 특히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분에게 취약한 시기이다.

본격적으로 제주지역 고령자 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5세 이상 인구가 14.8% 비율인 10만 769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2020년에는 15.3% 비율인 10만 6533명으로 조사됐다.

황사와 마스크



강창준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중국에서 발원한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전국에 황사 경보가 발령중인데, 평소 맑은 날과 비교하면 20배 정도를 웃도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황사는 주로 봄철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황사는 크기가 10-1000 마이크로미터(μm)의 흩먼지 알갱이와 중국 공업지대에서 배출된 카드뮴 같은 공해물질, 우리나라 대기오염 입자까지 뒤섞인 오염물질 덩어리다.

가량 흡입량이 증가해 천식환자에게는 최악의 환경이다. 비염환자도 황사가 무척 괴롭다. 황사먼지가 콧속에 쌓이면서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 같은 증상이 민감해지고 심해진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일찍 기승을 부리면서 호흡기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외출할 때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아무 마스크나 썼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황사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테스트를 거친 뒤 허가된 제품만 판매된다. 황사 마스크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Korea Filter)마크가 표시돼 있다. 예를 들면 KF80은 0.6μm 미만의 먼지를 80%이상 차단한다. KF 표시 뒤에 숫자가 클수록 차단효과도 뛰어나지만 사람에게 따라서는 호흡이 어려울 수 있어 호흡량을 고려해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편집인 이용곤 편집국장 조상운.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전국 꽃배달 서비스.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화원 746-0014, HP 010-3693-5563.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차량 구매 고객님의 한해서 블랙박스 설치해 드립니다! ■ 중고차 매입/판매/수출/폐차/대차 문의해주시면 365일 연중무휴 정직하게 알아봐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량 최고가 매입! ■ 정성자동차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 문의 ☎ 010-3620-1810 팀장 이 건 영